

## 『토지』에 나타나는 ‘수치(Shame)’ 감정과 윤리적 가능성\*

김연숙\*\*

1. 인간 감정으로서의 ‘수치’
2. 『토지』에 등장하는 ‘수치’의 양상
  - 2-1. 타자 부재와 수치심의 상실
  - 2-2. 내면화된 타자와 수치심의 발현
  - 2-3. 타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수치심
  - 2-4. 존재론적 ‘수치’와 인간에 대한 사유
3. ‘수치’의 윤리적 가능성과 『토지』

### 국문요약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소여가 아니라, 주체가 세계와 관계 맺는 체험이다. 기존 논의에서 ‘수치’는 긍정적인 의미부여와 부정적인 비판이 함께 있어왔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수치’는 자기 성찰로부터 인간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준다. 동시에 이 성찰과 반성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 심리적 억압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은 ‘수치’가 주체의 자기정체성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수치’를 겪는 인물을 살펴보고, 그들의 모색과 대응과정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했다. 첫

---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6A4A01013508).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조교수.

째, 타자가 배제된 자기동일성의 세계 내의 개인은 수치심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은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에 머무르며, 윤리적 판단과 가치 모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둘째, 수치심을 자기자존과 연결시키는 양상이 있었다. 이때 ‘수치’는 금지와 부정이라는 소극적 의미보다 정체성 탐색에 적극 관여하게 된다. 『토지』의 인물들은 수치 경험을 내면화된 타자(internalized other)로 삼아, 인간다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타자 공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치’가 있었다. 이때 개인은 수치심을 통해 공동체 속 존재로서 자신을 확립할 수 있었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 수치심이 자기성찰로 이어지는 양상이 있었다. 이 자기성찰이 외부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능동적인 의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수치심은 자신의 수동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의미를 탐색하는 존재론적 감정으로 작동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수치’가 자기 정체성의 구성과 공동체적 감정 능력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음을 알게 해주었다. 『토지』에서 드러나는 ‘수치’는, 인간성 상실의 징후를 고발하는 방식으로서도, 인간성 회복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토지』의 ‘수치’가 구성하는 윤리적 가능성이다.

(주제어: 『토지』, 수치, 감정, 자기성찰, 공감, 윤리, 공동체)

## 1. 인간 감정으로서의 ‘수치’<sup>1)</sup>

‘수치’는 일차적으로 ‘나’에 대한 감정이다.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수치심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스로를 향한 자기 시선은

---

1) 본고는 <2018 소설 토지학교>(주최: 박경리문학공원) 강의록에 게재된 일부 내용을 저본으로 사용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혹은 비교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타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 감정은 외부 대상이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인지’와 ‘판단’ 및 ‘평가’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이자 실천이다.<sup>2)</sup>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소여가 아니라 주체가 역사적으로 세계와 관계 맺는 가장 본원적인 차원의 집합적인 체험이다. ‘수치’의 의미도 이런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수치’에 대한 기존 논의에는 긍정적인 의미부여와 부정적인 비판이 공존해왔는데, 이는 수치 감정이 작동하는 독특한 방식 때문에 그러하다. ‘수치’는 자기 성찰과 반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부터 인간이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이 성찰과 반성은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은 “영혼의 병”(Sivan Tomkins)<sup>3)</sup>으로 지칭되어왔다. 수치심의 근저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자각, 그 때문에 자기자신이 한없이 나약하고 무력하게 느껴지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수치’가 자기경멸로 이어지고 그 때문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뒤섞이는 현상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자주 지적해온 바이기도 하다. 또 니체와 같은 철학자도 ‘수치’를 자기존재에 대해 긍정하지 못하는 노예의 도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수치심은 기존 사회적인 ‘정상성’을 통해 구성되는 동

2) 이명호,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론 검토』, 『비평과 이론』 제20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14쪽.

3) 김영미·이명호, 『수치 감정의 프레임으로 본 쿤트의 『치욕』』, 『영미연구』 제3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6, 3쪽에서 재인용.

4) 임흥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179-264쪽;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334-340쪽; 특히 너스바움은 이런 수치심이 인간의 원초적인 정서이며, 이는 특정한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기 전에 생기는 인식이라고 지적한다.

시에 사회적인 ‘정상성’을 재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억압효과를 낳게 되는 부정성이 있다고 비판받는다.<sup>5)</sup>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상담학·문학치료 등의 분야에서 ‘수치’는 일종의 교정 대상으로 간주되어왔다. 그 논의들은 대부분 수치심 경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 수준이 높다고 지적하며, 그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원인치료의 차원에서 수치심의 극복을 제안, 심리·음악·미술·문학치료의 해결방식을 탐색한다.<sup>6)</sup>

‘수치’의 긍정성을 논의하는 연구들은 자기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수치’의 역할에 주목한다. 수치심은 자신을 향한 본질적인 질문의 형태를 취하는 태도에서 발생하며,<sup>7)</sup> 이때 자기 성찰과 반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수치심과 죄책감의 구분도 정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수치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느낌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감각을 날카롭게 하는 것인 반면, 죄책감은 자신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sup>8)</sup> 즉 죄책감이 법과 규범에 지배되는 도덕 감정이라면, ‘수치’는

5) 마사 너스바움은 이 때문에 수치심이 시민사회에 부적합한 감정이라고 비판하며, 허라금·정미라 등은 성적 수치심이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으로 낙인찍힌 이들이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양상을 지적한다.(허라금, 「수치, 그 공적 사용의 정당성과 한계」, 『대한철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대한철학회, 2017, 57-69쪽; 정미라, 「“회복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수치의 공적 사용”의 정당성 문제」, 『대한철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대한철학회, 2017, 70-72쪽)

6) 정은영·신희천,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권 1호, 한국상담학회, 2014, 183-194쪽; 서길완, 「버지니아 울프의 「새 드레스」와 자전적인 글에서 나타나는 수치심에 대한 주제 반복의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3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201-232쪽; 박경순, 「수치심과 나르시즘의 정신분석적 이해」,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권 1호, 한국심리치료학회, 2011, 57-63쪽.

7) 오영숙, 「1960년대 한국영화와 수치심」, 『영화연구』 제69호, 한국영화학회, 2016, 77쪽.

8) Eve Kosofsky Sedgwick & Adam Frank, *Shame and Its Sisters: A Sylvan Tomkins Reader*. Durham and London: Duke UP, 1995, p.37.(이명호, 「아우슈비츠의 수치-프리모 레비의 증언집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제16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법을 벗어난 지점에서 인간의 존재와 만나는 존재론적 감정이고, 이런 점에서 ‘수치’는 단순히 완화하거나 극복해야 하는 감정인 것만은 아니다.<sup>9)</sup> 이와 같이 ‘수치’의 긍정성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들은 주로 문학 예술분야에서 이루어져왔는데, 이들은 신화, 시·소설·영화에서 드러나는 수치심이 인간의 고유성·존엄성과 결부되어 있다고 파악한다.<sup>10)</sup> 이때 ‘수치’는 ‘영혼의 병’이라는 진단과는 정반대편에서 “자기 영혼과 자기의 대화”<sup>11)</sup>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수치 감정이 드러나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

---

2011, 163-164쪽 재인용)

- 9) 이명호, 『아우슈비츠의 수치-프리모 레비의 증언집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제16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1, 163-164쪽.
- 10) 외국문학에서는 그리스 신화, 프리모 레비, 존 쿿시 등에서, 한국 문학에서는 주로 윤동주, 김중삼 등의 작가 연구에서 수치감정의 의미탐색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김수연, 『정의, 폭력, 공동체: 이해할 수 없는 정의와 윤리-J. M. 쿿시의 『수치』』, 『안과밖』 30권, 영미문학연구회, 2011, 93-116쪽; 김영미·이명호, 『수치 감정의 프레임으로 본 쿿시의 『치욕』』, 『영미연구』 제3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6, 3-26쪽; 서길완, 『프리모 레비의 자살과 현대적 의미』, 『비평과 이론』 제16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1, 55-76쪽; 이명호, 『아우슈비츠의 수치-프리모 레비의 증언집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제16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1, 155-177쪽; 이소영, 『프리모 레비의 증언 문학 연구-『이것이 인간인가』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40권,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13, 167-186쪽; 이소영, 『수치의 아이러니-프리모 레비와 카프카』, 『이탈리아어문학』 51권,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17, 123-149쪽; 이양숙,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21세기 초 도시청년의 감정구조』, 『외국문학연구』 제6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91-116쪽; 임지연, 『김중삼 시의 수치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283-310쪽; 정준영, 『『일리아스』에서 영웅적 자아의 aidōs와 행위패턴』, 『서양고전학연구』 제33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08, 5-44쪽; 진은영·김경희, 『유교적 수치심의 관점에서 본 윤동주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 제52호, 한국시학회, 2017, 299-326쪽)
- 11) 진은영·김경희, 『유교적 수치심의 관점에서 본 윤동주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 제52호, 한국시학회, 2017, 308쪽.

자면,<sup>12)</sup> 초창기에는 작품의 장르 규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지만, 1981년부터 다양한 연구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4년 『토지』 완간 이후에는 연구의 양적 확대는 물론 본격적인 기획 연구에 따라 주제, 구성, 인물, 장르에 대한 여러 모색이 진전되어갔다.

특히 인물 연구는 『토지』 연구에서 중요한 분야이다. 널리 알려진 바대로 『토지』는 1897년부터 1945년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하동(평사리)·진주·부산·경성·간도·연해주·일본 등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600여 명의 인물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는 이런 방대한 세계를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집중시키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시피 『토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진행·해결시키고 있으며, 총형으로 엮여진 인물들을 배치하는 일종의 ‘다성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13)</sup> 이때문에 박경리 소설의 주된 관심이 역사와 사회현실 또는 양자의 상호관련 양상이 아니라 그것들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 존재의 초월적 일반성을 탐구하는데 있다는 문학사적 평가<sup>14)</sup> 이래, 『토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간적 품성과 윤리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논의를 살펴보자면, 박경리 소설에 주로 나타나는 비극적 인간상을 분석하여 그로부터 인간이 자기 한계를 깨닫고 부조리한 운명을 받아들이는 비극적 비전을 규명하거나,<sup>15)</sup> 이 연장선상에서 『토지』에

12) 박상민, 『박경리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271-319쪽.

13) 이와 같은 『토지』의 서사 전개 방식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승윤, 『『토지』의 서사 전개 양상과 소설 작법』, 『대중서사연구』 제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417-447쪽 참조.

14)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459쪽.

15) 이상진, 『운명의 패러독스, 박경리 소설의 비극적 인간상』, 『현대소설연구』 제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73-408쪽.

서는 인물들 간의 대면과 극복의 서사가 형성되고 있음을 살펴보는 연구가 있다.<sup>16)</sup> 또 『토지』의 인물들이 가치의 상대화/다양화를 통해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과 그 존재 윤리의 가치,<sup>17)</sup> 혹은 등장인물들의 고통과 트라우마 등이 치유되는 방식 등에 주목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아성찰, 숭고미, 생명 의식, 윤리의식 등에 대한 의미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sup>18)</sup>

이처럼 『토지』의 인물연구는 대체로 비극적인 인간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는 인간군에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모색과 대응과정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윤리·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심화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겪는 인물의 양상 그리고 그들의 모색과 대응과정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토지』에 등장하는 최참판댁 일가 및 양반·지식인보다는 평사리의 평범한 혹은 서민층 인물에 대해 사례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에게서는 사회 윤리나 지식에 기반한 가치 탐색보다 경험에서 기인하는 감정발현과 그에 따른 의미탐색이 좀더 뚜렷히 나타나리라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추후 『토지』에 대한 거시적인 감정연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6) 이상진,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여성문학연구』 3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351-382쪽.

17) 김은경,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굴절(屈折)”의 원리와 인물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306-338쪽.

18) 그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윤리적·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인간연구』 제23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55-79쪽; 서현주,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타자 인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9호, 국제한인문학회, 2012, 57-86쪽; 이재복,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숭고미』, 『우리말 글』 제59집, 우리말글학회, 2013, 363-396쪽; 전예진·방재석, 『『토지』의 여성이 겪는 트라우마와 공간 이동-서회와 봉순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409-432쪽.

## 2. 『토지』에 등장하는 ‘수치’의 양상

### 2-1. 타자 부재와 수치심의 상실

『토지』 초반부터 등장하는 봉기는 평사리 소작농으로 욕심 많고 심술궂은 인물이다. 그는 낫선 이는 물론 이웃에게도 억지를 부리며, 남의 것을 가로채기 일쑤다. 이런 일은 일상처럼 되풀이되지만, 『토지』에서 봉기라는 인물이 명백히 악인(惡人)으로 서술되지는 않으며, 그를 강하게 비난하거나 제압하는 경우도 드물다. 봉기의 행위가 기껏해야 미역 한두 오리, 채 한 개를 가로채는, 좀도둑질도 되지 못할 하찮은 정도여서 핀잔과 면박,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봉기에게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그의 욕심이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수치심의 상실이다.

어느 해 봉기는 동네 과부인 북동네가 최참판댁 하인 삼수에게 쌀 말을 얻어먹고 그와 잠자리를 같이했다는 흉측한 소문을 퍼뜨린다. 북동네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사건의 내막은 예전에 봉기의 딸이 삼수에게 겁탈당한 적이 있었는데, 북동네가 우연히 그 일을 알게 되었고, 봉기는 그런 북동네가 흑시라도 딸의 일을 소문낼까 겁먹고 먼저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북동네의 자살 이후, 분노한 몇몇 사람들이 봉기를 찾아가 사실을 실토하고 북동네의 명예를 회복해 주라고 압박한다. 봉기는 자신이 마을사람들 앞에서 자백하는 대신 딸의 비밀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고, 그들과 타협한다. 그 타협을 실행하기 전날 밤, 봉기 내외는 잠이 오지 않는다.

“모리저든 아가리 닥치랴 다 내 깊은 생각에서 한 짓인데 (북동네가—  
인용자) 그리 쉽기 죽을 줄 누가 알았더냐”



“그래서 참 잘됐소! 남우 생목심 끊게 하고 내사 마, 얼굴 치키 들고 동네 나갈 수 없일 기요.”

“부끄럽은 생각을 한께 임자(봉기의 아내-인용자)는 청풍당석이구마. 남부끄러운 생각 백분 해도 좋으니까네 자식 낳고 사는 두리(봉기의 딸-인용자) 신세나 안 곳있이믄 좋겠다.”(중략)

봉기에게는 북동네의 죽음 같은 것은 안중에 없었다. 죄의식도 태산 같은 근심 앞에 지푸라기만도 못한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딸 자식 흠집을 어떻게 가려줄까, 다만 그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다.<sup>19)</sup>

성폭력과 자살, 처녀(두리)와 과부(북동네)의 체면, 이들의 경중을 구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뿐더러 불가능하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상처와 고통이 가장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봉기는 자기고통을 우선하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자신과 가족이라는 자기 관계의 범주 외에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

다음날 봉기가 자기 죄(헛소문)를 고백하자, 동네사람들은 그에게 “네 놈 낮가죽은 쇠가죽으로 만들었냐”고 욕설을 퍼붓는다. 그러나 봉기는 딸 때문에 죄를 자백하러 나왔을 뿐 자기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수치심이 전혀 없다. 그는 “세상에 애멘 소리 안 듣고 사는 사램이 있나? 애멘 소리 들었다고 다 죽을 것 걸으믄 사람우 씨가 남을기던가? 말 한마디 잘못된 죄로 이렇그름 경을 치는 뱀이 어디 있노? 내가 도둑질을 했나 칼 들고 썰인을 했나?”<sup>20)</sup>라고 내지른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며 격앙된 감정을 폭발하지만, 이미 북동네는 죽은 이후이며, 봉기의 뻔뻔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봉기를 두고 최서희 집안의 집사격인 연학과 읍내 선생 석이는 가차없이 짐승이라고 칭한다. 이

19) 박경리, 『토지』 11권, 마로니에북스, 2012, 109-111쪽.

20) 박경리, 『토지』 11권, 마로니에북스, 2012, 117쪽.

때 짐승/인간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수치심의 유무이다. 봉기에게 수치심이 없다는 것은 김평산 일가의 비극에서 한층 더 드러난다.

김평산이 최치수 살인죄인으로 처형당하고 나서, 그의 아내 함안댁은 목을 매고 자결한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한편 함안댁이 불쌍하다며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때 봉기는 아픈 아내를 떠올리며, 나무에 올라가 함안댁이 목을 매었던 새끼줄을 챙긴다.<sup>21)</sup> 참담한 죽음 앞에서 새끼줄부터 챙기는 봉기의 모습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실제로 봉기가 새끼줄을 가져가는 걸 본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나뭇가지를 툭툭 분질러 챙기기도 했다.

여기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행위의 유무가 아니라, 그 바탕에 깔린 ‘윤리’이다.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며 머뭇머뭇 나무로 다가가거나,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몰래 옷소매에 감추는 사람과 남보다 먼저 새끼줄을 차지했다고 의기양양 떠들어대는 봉기의 태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나뭇가지이든 새끼줄이든 타인의 죽음 앞에서 자기이익을 챙긴 것, 즉 행위는 동일하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인간과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수치심을 상실한 인간은 명백히 다르다.

사르트르에 따르면,<sup>22)</sup> ‘수치’의 1차적인 구조는 ‘누군가의 앞에서’의 부끄러움, 즉 타자의 존재와 그에 대한 인식에서 성립한다. 이 ‘수치’는 타자에 의해 ‘드러나는’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런 타자의 존재와 관계하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확산되어 간다. 그러나 봉기에게 세계는 자신과 자기가족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가족은 나와 동

21) 당시 사람이 목 매달고 죽은 나무의 가지나, 목을 맨 새끼줄을 끊어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 정기가 나뭇가지나 새끼줄에 옮겨간다고 여긴 것이다.

22) 장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옮김, 동서문화사, 2009, 385-387쪽 참조.

일하거나 내가 연장된 존재일 뿐 타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봉기는 타자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는 자기동일성의 세계에 존재하며, ‘수치’ 감정은 발생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것이다.

“그놈(한복이-인용자)이 우리네가 못 시키는 공부를 제 새끼한테 시켜? 아 세월이 얼마나 좋으면 살인죄인의 손(孫)이 상급 학교로 다 가노 말이다.”(중략)

함안댁이 목을 맨 살구나무에 맨 먼저 기어 올라가서 목맨 줄을 차지한 봉기였다. 한복이 달구지를 타고 평사리에 올 때면 봉기는 반드시 살인죄인의 자식이란 말을 들먹였다. 원망에 가득 찬 한복의 눈을 봉기는 기억한다. 그러나 언제나 말이 없었던 한복이, 한복은 건디었고 봉기의 독설은 습성이 되어 방금, 조금 전까지도 욕을 했었다. 멧힌 원한도 없건만 석이 그를 두둔한다고 해서, 뭐 석이가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인죄인의 자식놈이 우째서 그리 잘사노 한복이 들으란 듯 서슴없이 말했을 것이긴 했다.<sup>23)</sup>

한참이나 세월이 흐른 후에도 봉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심지어 함안댁의 아들 한복이 앞에서 그 당시의 일을 거침없이 되뇌다. 어머니가 목매달아 죽은 새끼줄을 차지했다는 봉기의 자랑을 들으며, 한복이는 목은 상처에 피가 흐르는 듯한 아픔을 느낀다. 한복이가 결혼하고, 아들딸을 낳아 키우는 동안에도 봉기는 계속해서 모진 말을 가한다. 살인죄인의 아들도 결혼하고, 살인죄인의 아들도 자식 낳고 사는구나, 살인죄인의 후손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구나, 세상 참 희한하다 등등의 독설을 면전에서 내뿜는다. 사실상 봉기가 함안댁-한복, 김평산 일가에게 적대감을 가질 이유나 특별한 사건은 없었지만, 일종의 질투를 느꼈다. 부모

23) 박경리, 『토지』 12권, 마로니에북스, 2012, 347-353쪽.

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최약자로 내몰린 아이들이 그럭저럭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자신의 처지보다도 나아보인다는 비교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적대적인 반감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런 봉기가 돌연 태도를 바꾸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복이의 아들 영호가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벌인 진주농고 맹휴 계획에 연관되어 경찰에 검거된 것이다. 영호가 단순가담자도 아니고 주모자의 한 사람임이 밝혀지자, 평사리 사람들은 은밀하게나마 우리 동네에서 인물이 났다며 기뻐하고 응원을 보낸다. 노인이 된 봉기는 이때 누구보다 앞장서 외친다.

“글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하든 나라의 충신 되는 기고 지방 축문 쓰는 거는 조상을 위해서 효도하는 기니께 다 같은 말인데 아무튼시간에 우리 동네서도 공부간 학상이 있고 또 그놈아아가 남한테 빠질세라 만세를 불러서 왜놈한테 붙잡히갔이니 기미년 만세 때맨치로 우리 동네도 근동에서는 제법 한다하는.”

“보소, 덕수할배(봉기-인용자)요. 다른 사램이든 몰라도 듣기가 민망하요.”

저놈의 늙은이 낮가죽이 아니라 쇠가죽이고나, 마음속으로 욕을 하면서 끝봉이 핀잔을 준다.

“머라꼬? 몇 땀에 니가 민망하노!”

봉기노인이 화를 낸다.

“얼매 전만 해도 상급 학교에 간 영호를 눈의 까시맨크로, 안 그랬습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가만히 기셨이든 좋을 성싶은데.” (중략)

“지나간 일을 와 되배쌍노! 아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제.”

화를 내다 말고 입술을 오므리며 웃는다. 느물느물하다. 모두 그 얼굴을 보고서는 계면쩍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sup>24)</sup>

24) 박경리, 『토지』 13권, 마로니에북스, 2012, 72-73쪽.

한복이에게 저주같은 독설을 퍼부어대던 봉기가 갑자기 칭송에 가까운 말을 늘어놓으니 놀랍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과거와 현재의 괴리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태연하게 웃으며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오늘이다’는 봉기의 태도다. 물론 북동네의 자살처럼 엄청난 일도 있었지만, 봉기의 뻔뻔한 말마따나 그가 살인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니다. 또 줌도독질이나 기타 잘못들도 당시의 시대 배경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보다는 마을을 시끄럽게 만드는 분란 정도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책임이나 과오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무시무시한 것은 이런 삶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수치가 없는 곳, 자기 성찰과 공감에 없는 곳은 타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성립 가능하다. 타자가 배제된 자기동일성의 범주 안에서 인간은 자기합리화 차원을 넘어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의 극단으로 치달아 간다. 인류의 역사는 수치가 사라진 자리에서 인간이란 의미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생생히 증언한다.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히만의 일화는 그러한 사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성실하고도 효율적으로 나치의 과업을 완수했던 관료 아이히만은 당당했다. 그는 전범재판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고 말했고, 아니 느끼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관료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의 모습으로부터 한나 아렌트는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 그것은 인간일 수 없다는 가장 잔혹한 사실을 알려주었다.<sup>25)</sup> 이는 자기 존재가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즉 타자의 부재로부터 수치심이 사라진 모습에 다름 아니다. 『토지』의 봉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5)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06, 14-15장 참조.

## 2-2. 내면화된 타자와 수치심의 발현

『토지』에서는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이 빈번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전체 시대 배경이 일제강점기인데다가, 최참판댁의 몰락이라는 마을 전체의 위기 때문이다. 외부세계의 거대한 부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의 무력함은 우울, 수치심, 죄의식, 자기비하·모멸 등의 감정으로 이어진다. 이런 부정 감정들은 『토지』에서 개인의 습관적인 언행, 전체적인 분위기 묘사 등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던 중 마을사람들은 천애고아가 된 서희의 재산을 노리는 조준구를 응징하기 위해 한밤중에 최참판댁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이때 두만아비는 몰래 강 건너 사돈댁으로 몸을 피해 버린다. 며칠 후 그가 돌아와 보니, 조준구 응징은 실패했고 습격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도망가버린 상황이었다.

한조네 식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다 못해 강가로 나온 두만아비는 눈앞에 있는 강물이 보이질 않는다. 자신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불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지난날의 한조 모습이 눈앞에 삼삼거리 견딜 수 없다. 까닭 없이 조준구한테 끌려가 매를 맞고 미칠 것 같으면서 발독에 앉아있던 한조,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놈 하며 빈정거리면서도 의리를 저버린 일이 없는 윤보의 얼굴, 영팔이와 용이의 얼굴, 친구도 이웃도 없이 혼자 남은 외로움이 찬 강바람과 함께 전신에 스며든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헛기침으로 막아보지만.

마을은 산천초목이 떠는 형세에 빠졌다. 일본 헌병들의 총칼도 무서웠지만 조준구의 손가락이 더 무서웠다. 손가락 간 곳에 죽음이 있었다. 다른 마을에도 몇 사람인가 죽었다는 말이 있다.<sup>26)</sup>

26) 박경리, 『토지』 4권, 마로니에북스, 2012, 367-368쪽.

조준구 습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한조는 다른 고장에 있었다. 사건 이후 평사리로 돌아왔지만, 조준구가 그를 폭도라고 지목하자마자 앞뒤 정황과 상관없이 처형된다. 조준구의 “손가락이 간 곳에 죽음이 있었다”는 말이 비유적인 수사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었고, 평사리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은 실로 엄청났다. 두만아버·어미도 불안하고 두려운 한편 억울하게 죽은 한조나 사건에 가담했다가 행방을 감춘 친구 윤보, 이웃 영팔이·용이를 떠올리며 슬퍼한다.

이후 두만아버·어미는 한평생동안 그 사건을 회피했다는 죄의식과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이들 부부는 평소 동네에서 선한 사람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때때로 윤보가 두만아버를 번갯불에 콩 구워먹을 놈이라고 놀려대긴 했지만 그것도 그저 남보다 한 발 앞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소 악착스러워 보인다는 뜻 정도였다.

고아가 되어 평사리를 떠났던 한복이가 다시 고향을 찾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한복이를 불쌍해하면서도 최참판댁의 눈치를 보느라 모른 척한다. 이때 두만네는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냐며 한복이를 데려다 밥도 먹이고 재워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또 김평산과 함께 처형당한 칠성이의 처 임이네에게도 인정을 베푼다. 임이네는 이전부터 마을에서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고, 욕심 많기로 손꼽히는 아낙네였다. 그런 임이네가 남편이 처형되고 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을 찾아온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한복이보다 몇 백 배는 더 임이네를 꺼려한다. 그러나 두만네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굶주리는 임이네를 가여워하고 도와준다.

두만네 내외의 성정이 이러하니, 그들이 조준구 습격사건 때 참여하지 않은 일을 흠잡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십수 년이 지난 이후에는 대부분 그 일을 기억도 못한다. 당사자 격인 서희도 간도에서는 물론, 다시

평사리로 돌아온 이후에도 두만네 내외의 일을 문제삼기는커녕 언급한 적조차 없다.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그들의 일은, 최참판댁의 몰락·조준구의 장악·서희의 귀환이라는 거대한 사건의 흐름 속에 거론될 여지가 없는 사소한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 내외에게 그 일은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며, 이들의 ‘수치’는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가) “참, 엄니 최참판댁에는 한 분도 안 가봤습니까?”

“우찌 가졌노 내 무신 얼굴 쳐들고 거기 가졌노” (중략)

“그때는 아버지가 우리집(딸 선이가 시집간 사돈댁-인용자)에 오셔서 그리 된 것 아니요 동네 있어서 그리 뻘임사,”

“이제 그런 말 하든 무신 소앵이 있노 니 아배가 그 일을 모리고 사돈댁에 갔건데?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난다. 니 아배하고 영만이가 사돈댁으로 피신한 뒤 윤보 그 사램이 찾아왔던 일이. 이 팽이 그놈(두만아버의 이름인 김이평을 가리킴-인용자) 생각 잘 했일 기요, 함씨로 냉수 한 그릇 떠돌라 카든 일이. 속으로는 얼마 나 분통이 터지고 껄뻘했졌노 니 아배도 영만이도 그때 일을 생각하든 땀이 안 좋은 갑더라.”<sup>27)</sup>

(나) “니 아버지 살아 생전 부끄럽기 생각한 일이 꼭 하나 있었네라.”

“산에 안 가신 것(조준구 습격사건-인용자) 말이지요?”

두만이 모친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만이가 돈을 벌어서 진주로 나오기는 했다마는 니 아버지 고집에 그 일만 아니었다든 고향 버리고 떠났을 리가 없다. 나 역시도 그렇고, 살아도 살아도 뜨내기 길은 생각, 나이 들수록 그곳 생각이 난다. 그때가 좋았제. 어디로 가도 내 나온 고향보다 좋은 곳은 없다.”<sup>28)</sup>

27) 박경리, 『토지』 10권, 마로니에북스, 2012, 253-254쪽.

28) 박경리, 『토지』 18권, 마로니에북스, 2012, 379쪽.



간도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최서희에게 인사하러 갔었냐는 딸의 말에 두만네는 무슨 낯으로 거길 가냐며 고개를 젓는다. 그런 어미를 위로할 겸 당시의 일을 두둔하는 딸의 말에는 마치 재판관처럼 엄정하게 시비를 가린다. 그 어떤 자기합리화도 없이 자신과 가족에게 엄격한 판단을 가하고, 타자의 시선 여부와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수치심을 강하게 느낀다. 심지어는 그 수치심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결단을 내리고, 그로 인한 모든 고통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들의 ‘수치’는 마을 전체가 가담했던 조준구 습격 사건을 회피했던 일종의 후회나 죄책감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그 회피는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이웃들을 외면한 것이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 부정함(조준구)을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다시피 전체 맥락에서 이 사건은 당사자적인 최서희는 물론 그 누구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일회성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만네 내외의 수치심은 발현 당시에는 개연성 심지어 인과적 필연성까지도 인정할 만하지만, 그 수치심을 10년 이상 변함없이 간직하며 심지어는 그 때문에 삶의 양상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특이하다. 또 일반적으로 후회나 죄책감은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깊숙이 자리잡고 자학·자조·자기경멸로 이어지는데 비해, 두만네 내외의 ‘수치’는 그런 부정적인 방식으로 진전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 그리스의 사유에서 ‘수치’는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인간적 역량으로 간주되었으며, 그것은 타인의 비난에 직면해서야 발생하는 수동적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수치’는 외적 평판으로 인해 자아가 위축될 때 느끼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자기와 자기 영혼의 관계맺음 속에서 영혼에 나쁜 것이 가해질 때 느끼고 그것을 경계해주는 감정<sup>29)</sup>으로 해석되

29) 진은영·김경희, 『유교적 수치심의 관점에서 본 운동주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

었다. 그리스 영웅 신화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영웅적 자아와 행위패턴은 '수치(adiōs)'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여기서 수치는 금지(inhibitory)의 소극적 역할을 넘어서서 영웅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는 역할 즉 영웅의 자존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sup>30)</sup> '수치'는 “용사의 용사다움(자기다움)”, 내가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라는 명령을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내면화된 타자(internalized other)”로 작동한다는 것이다.<sup>31)</sup>

두만네 내외의 수치심이 오랜 세월동안 간직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능하다. 이들은 수치심을 통해 새로운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영웅적인 자아·행위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두만네 내외는 조준구 습격 사건으로부터 십수 년이 지나, 노년에 이르러서도 수치심 그 자체를 간직할 뿐 그로 인한 자책이나 자학의 징후도, 자기위안이나 과시의 태도도 드러내지 않는다. 본디 성품이 올곧고 인간답게 살아온 그들에게 ‘한평생 딱 한 번 남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사실은 후회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들은 그 후회로부터 생겨난 수치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내면화된 타자’처럼 일평생 간직한다.

남들이 뭐라든, 그때의 사정이 어떻든 내 잘못을 그 자체로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수치’를 한평생 간직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히 대단한 일이다. 그들은 습격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조준구가 평평거리고 일본의 식민지점령이 판을 치는 암흑같은 세상에서도, 남들보다 좀

제52호, 한국시학회, 2017, 307쪽.

30) 정준영, 『『일리아스』에서 영웅적 자아의 aidōs와 행위패턴』, 『서양고전학연구』 제 33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08, 5-20쪽.

31) 정준영, 『『일리아스』에서 영웅적 자아의 aidōs와 행위패턴』, 『서양고전학연구』 제 33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08, 20쪽. 나아가 정준영은 이로부터 ‘내적 필연성’이 형성될 때 영웅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자아를 구축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을 때도,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인간다움을 지키는 긍정적인 인간으로 그려진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소소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했지만, 그 소소함 속에는 인간다움을 지키는 대단한 힘, ‘수치’ 감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두만네 내외는 ‘수치’를 삶의 기쁨자로, ‘내면화된 타자’로 삼았기에 한평생 “푼수를 알고 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 2-3. 타자에 대한 적극적 공감과 수치심

다음으로 살펴볼 영팔이는 두만네 내외보다 더 적극적인 감정 발현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생계 걱정엔 전전긍긍하는 가난한 평사리 소작농으로, 남들에게 욕먹을 일도 남들보다 특별히 선한 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영팔이가 서회를 따라 간도로 와서 살아가던 중 월선이의 장례식에 찾아온 서회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월선이 죽어서 쓸쓸한 것도 그렇지만 뜻하지 않았던 귀향에의 서광이 그의 마음을 몹시 복잡하게 한 것이다. 희비쌍곡이라고나 할까. 우직한 영팔이는, 자다가도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막힌 소식을 되새겨 보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영팔은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낀다.

‘초상집에서 혼자만 좋아하고 있는 것은…… 참말로 나도 야박한 놈이구나. 월선이가 죽었는데, 죽은 지 며칠이 됐다고.’(중략)

‘이거는 상가집에 온 까매기 같은 것 아니냐. 남은 사람이 죽었는데 좋아서 지랄을 하고 있으니, 하기사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산 사람은 살아야제.’

하기도 했으나 들뜨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의기소침하는 마음 상태의 되풀이는 중내 신경질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금 죽은 김훈장도 모습을 드러내며 영팔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sup>32)</sup>

월선이는 병으로, 김훈장은 늙고 쇠약해져서 죽었다. 영팔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죽음이다. 더구나 영팔이는 그 누구보다도 월선이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녀에게 인정스럽게 대했다. 늘그막에 독립운동이라는 뜻 하나로 혈혈단신 간도로 온 김훈장도 진심으로 존경하며 받들었다. 죽은 이들에게 영팔이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영팔이는 죽은 사람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향채비를 기뻐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이것이 영팔이의 첫 번째 수치라면, 두 번째 수치는 평사리에서 경험한다.

서희 일행과 평사리로 돌아온 영팔은 거의 이십년 만에 추석 오광대 놀이 구경을 한다. 그런데 놀이판에는 독립군 의병들이 숨어있었고, 그 정보를 입수한 일본 군인들이 뒤쫓아와서 급습한다. 의병들을 찾아내고 자 여기저기를 뒤쫓는 일본 군인들을 피해 우왕좌왕하던 틈바구니에서 엉뚱하게도 마당쇠가 총에 맞아 죽고, 흥이와 몇몇 젊은이들은 의병으로 의심받아 헌병대로 끌려간다.

‘판술이, 제술이가 따라왔이믄 큰일날 뻔 안 했다. 그 아이들은 만세운동 때 잡히가고 했이니 영락없이,  
마음속으로 안도의 숨을 쉰 자기 자신이 영팔은 부끄러웠던 것이다.  
이 차중에 제 자식 걱정만 했다 싶어 양심에 가책을 느꼈기에 다시  
“이대로 있어믄 우짤 기고”  
발까지 구르며 또 조바심을 낸다.<sup>33)</sup>

32) 박경리, 『토지』 8권, 마로니에북스, 2012, 259쪽.

순식간에 ‘안도-부끄러움-양심의 가책-조바심’을 넘나드는 영팔이의 복잡한 내면과는 달리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는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다. 그런데 영팔이는 부끄러워한다. 마을 젊은이, 친구(용이)의 아들인 홍이까지 잡혀가는 와중에 제 자식 걱정이라니, 그런 자신이 부끄럽다 못해 양심의 가책까지 느낀다고 토로한다. 영팔이는 “마음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뿐 그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고, 잘못을 범한 것도 없다. 그의 복잡한 심사는 그야말로 내면 감정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었다. ‘가책’을 느끼기에는 극히 미미한 일이어서, 어쩌면 영팔이가 지나치게 예민하다거나 소심하다고 판단해야 할 정도다.

하지만 월선이의 장례식에서 부끄러워하고 오광대놀이판에서는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는 영팔이는 존엄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 인간다움은 타인의 위치에 자신을 놓아보고 그로부터 남의 고통을 상상하는 공감, 그로부터 발생한 수치심에서 구현된 것이다. 영팔이는 헌병대에 끌려가는 젊은이들의 아버·어미의 입장을 상상했고, 잡혀가지도 않은 심지어 일어나지도 않은 자식의 일을 걱정했다는 게 미안했다. 그 미안함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자신이 부끄럽고, 고통받는 타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다. 타인에게 공명할 수 있는 감각, 그 공감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영팔이의 수치다.

평사리의 가난한 소작농, 영겁결에 지주댁 아가씨를 따라간 낯선 이국땅 간도에서도 먹고 살기가 팍팍한 형편, 다시 찾아온 고향은 이미 빼앗긴 식민지이며 변함없이 가난한 생활을 겨우 이어가는 것이 영팔이의 처지다. 그런 영팔이가 작은 기쁨과 편안함을 느낄 때마다 자신과 이어진 인간관계의 끈을 더듬어 타인을 공감하려 한다. 이후 발생하는 영팔

33) 박경리, 『토지』 10권, 마로니에북스, 2012, 207쪽.

이의 수치심은 개인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관계망 역할을 한다. 이때의 ‘수치’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타자와의 소통을 지향하는 속성<sup>34)</sup>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타자와 소통하지 못하는 것, 타인에 대한 무감각은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Psychopath)라 불리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증은 타인의 감정을 추론하는 능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증상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동 양식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보이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나 걱정이 전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sup>35)</sup> 이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타인에 대한 무감각은 그 자체로 인간관계, 결속력,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힘이다. 이와 반대편에 자리잡은 것이 바로 영팔이의 수치심이다. 시시때때로 불쑥 튀어나오는 그의 ‘수치’는 나의 범주 밖에 놓인 타인의 존재를 감지하고, 내가 아닌 타인에게 공감하는 감정이자, 자기 존재가 그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애덤 스미스는 ‘동료 감정(fellow-feeling)’라 부르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에 대한 동료 감정을 다른 사람들 속에서 발견하는 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sup>36)</sup>

『토지』에서는 영팔이의 삶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작가는 흥이의 입을 빌려 그를 ‘실하고도 청정한 한 그루의 나무’로 형상화한다. 누구에게 인생은 아쉽고 후회스러울 터이고, 노인이 된 영팔에게는 “바보 같

34) 이양숙,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21세기 초 도시청년의 감정구조』, 『외국문학연구』 제6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92쪽.

35)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http://www.snuh.org/health/nMedInfo/nView.do>.

36)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박세일 역, 비봉출판사, 2009, 제2장 참조.

은 생애”, “삼간두옥”, “자식들과 어리석은 노처”만이 남아 있지만, 그에  
게는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고평(高評)이 가해진다.<sup>37)</sup> 이는 수치 감정이  
타자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발현해서 내부적인 자기 성찰로 이어지며,  
이것이 전체 삶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적극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 2-4. 존재론적 ‘수치’와 인간에 대한 사유

네 번째 수치의 사례로 살펴볼 인물은 이용이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어진 성품의 소유자이다. 또 조준구 습격사건에 앞장서고, 독립군 의병  
도 가담하는 등 적극성도 보여주는 인물이다. 하지만 사생활에서 용이  
는 첫사랑인 월선이—질투 많은 본처 강청덕—아들 흥이의 생모 임이  
네에게 얽혀 복잡하다. 그는 이 관계 속에서 판단·선택·결정보다는 주어  
진 대로 순응하거나 심지어는 자포자기하는 듯한 비주체적·비자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일쑤다. 이 복잡한 내면의 근저에는 타인의 시선을 의  
식하는 데서 비롯된 수치심이 있다. 이것이 용이의 첫 번째 ‘수치’다.

아무리 월선이가 첫사랑이고 피치 못할 사정(무당 딸)으로 결별했다  
고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강청덕이 있는 한 용이와 월선이는 불륜관  
계다. 게다가 용이는 처첩을 예사로 거느리는 양반도 아니다. 설상가상  
으로 임이네와 하룻밤 관계로 아들까지 낳아버렸다. 자신이 의도한 것  
은 아니지만 세 여자를 거느리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용이는 부끄럽다.  
게다가 그는 여자들을 책임질 경제력도 없다. 간도 이주계획을 세울 때,  
용이는 턱없이 경비가 부족했다. 저도 모르게 임이네, 월선이, 서희의

37) 박경리, 『토지』 13권, 마로니에북스, 2012, 325쪽.

돈을 넘보다가 스스로 부끄러워 “얼굴이 불덩이”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때 그는 일생일대의 치욕감으로 스스로 가슴을 찢었다고 고백한다.

간도로 이주 후의 상황은 더 복잡하고 부정적이다. 용이-임이네-홍이-월선이가 한 집에서 살면서, 자신은 물론 임이네와 아들 홍이까지 월선이에게 빌붙어 사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영악한 임이네는 월선이의 국밥집에서 몰래 돈을 빼돌려 제 잇속을 챙기고 있지만, 막을 수가 없다. 사랑-돈이 뒤엎힌 가운데 용이는 그야말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괴로워한다.

임이네 악담을 들으며 집을 나섰을 때 월선이는 밤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용이는 잠자코 걷기 시작했다. 월선이 뒤따라온다. 시가를 빠져나와 쓸쓸해진 거리에 이르렀을 때 용이 돌아보았다.

“머하로 따라오노.”

“그만 가입시다, 집에.”

월선이 다가서며 그의 팔을 잡는다.

“내, 내, 내가 사람가? 사내자식이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다. (5\_22~23)

용이는 “길을 걷다가도” “세상이 좁아” 보이고, 술 한 잔 들이킬 때도 “이마뺨을 치듯 수치심은 달려” 든다고 토로하며, “도망갈 곳 하나 없게, 숨 쉴 구멍 하나 없이 온통 세상이 자신을 옥죄는 듯이 느끼고, 벼락같이 내리치는 수치에 술에 취할 수도 없음”에 고통스러워한다.<sup>38)</sup> 이것이 용이의 두 번째 ‘수치’다. 이 ‘수치’는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반성적 수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사람가, 사내자식이가”라는 울부짖음에는 ‘남자’에 대한 당대의 가부장적 인식이 일정 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38) 박경리, 『토지』 4권, 마로니에북스, 2012, 17-18쪽.



자기자신에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질문하는 원초적인 자기성찰, 그 때문에 발생하는 수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자기성찰은 자기 존재근거에 균열을 내고, 나아가 기존의 존재를 폐기해버릴 것을 은연중에 그러나 끈질기게 요구한다.

그 결과 용이는 생활의 변화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긴다. 아들 흥이를 월선에게 맡겨두고, 임이네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곳으로 거처를 옮겨가기로 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판단과 변화가 용이가 처한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월선이와 임이네를 임시 분리했을 뿐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이의 태도와 감정상태는 그 이전과는 명백히 달라진다.

임이네의 언동은 옛날보다 한층 더 거칠다. 도무지 도리에 닿지 않는 양탈인 것이다. 그는 풀같이 달콤한 지난날의 그 돈의 맛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래서 느끼는 것은 병적인 신경질이었고 월선이가 부모 죽인 원수만큼 미운 것이다. 옛날 같이 임이네는 용일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중략) 임이네의 상사병과도 같은 돈에 대한 집념은 고쳐지질 않았고 용이는 용이대로 용정서의 그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놓여난 것만을 다행으로 여기듯 대개는 임이네 신경질에 무감각인 편이었다. 그리고 월선을 위한 바람막이 같은 자신을 깨달을 적에 용이는 일상의 추악한 단면을 외면할 만큼 인내심이 깊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단 말고, 불쌍한 것.’

순수하게, 옛날과 같이 순수하게 용이는 월선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7\_241)

용이는 임이네의 그 어떠한 언동 앞에서도 인내심을 잃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그저 견디는 것에 지나지 않는, 소극적인 일이다. 그러나 용이는 갖은 신경질과 행패, 거친 언동을 일삼는 임이네를 묵묵

히 인내할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옛날과 같이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  
기까지 한다. 참고 견디는 수동성으로부터 어떻게 순수함을 회복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이때의 변화(월선과 임이네의 분리), 평정, 순수함, 눈물 등에 대해 의  
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용이의 태도와  
감정변화는 자기의식의 범주에 국한된 것이며, 외부로 확장시키려는 능  
동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동  
적 의지가 결여된 수동적 굴복으로 보이는 이러한 ‘수동성’은 아감벤이  
분석하듯이 단순히 외부자극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과는 다  
르다. ‘수동성’은 주체가 자신이 수동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느끼는 것,  
자신의 수용성에 의해 감응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다.<sup>39)</sup> 따라서 이  
‘수동성’은 현실에서 “무엇이지 않을 잠재성”을 발현시키며, 이는 자체의  
지양이라는 형태로 현실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는데 의미가 있다.<sup>40)</sup>

용이가 자기자신을 파괴할 만큼 자학한 것도 수치심 때문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자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수치심 때문이었다.  
용이의 수치심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그로부터  
자신을 바라다보고, 자기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었다. 현실 순응·굴  
복이 아니라, 자신을 수동적으로 구성하는 현실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그로부터 인간다움을 질문하고 인간으로 살아갈 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인간의 범주를 질문하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

39) 이명호, 『아우슈비츠의 수치-프리모 레비의 증언집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제16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1, 172쪽.

40) 조르주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110-117쪽 참조. 나  
아가 아감벤은 잠재적인 것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능력(자신의 비잠재  
성)을 유보하는 순간에 현실성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때 비잠재성의 유보란, 잠  
재성의 파괴가 아니라 반대로 잠재성의 실현, 잠재성이 자신의 잠재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감정이다. 수치심은 용이가 외부세계에 압도당하고 자기한계에 맞닥뜨려서도 인간의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간의 틀을 무너뜨리지 않게끔 이끌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자기성찰, 타인을 생각하는 부끄러운 공감, 그 ‘수치’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꾸역꾸역 견디어내는 것이 바로 용이의 일평생이었다. 그래서 용이는 “지옥의 밑바닥”같은 일상에서 가까스로 벗어났고, 사후(死後) 아들 홍이에게 그는 “삶이 존귀하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 준 사람”으로 떠올려지는 존재로 각인된다.

### 3. ‘수치’의 윤리적 가능성과 『토지』

본고에서는 『토지』를 대상으로 ‘수치’를 겪는 인물을 살펴보고, 그들의 모색과 대응과정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했다. 첫째, 타자가 배제된 자기동일성의 세계 내의 개인은 수치심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인은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에 머무르며, 윤리적 판단과 가치 모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둘째, 수치심을 자기자존과 연결시키는 양상이 있었다. 이때 수치는 금지(inhibitory)와 부정이라는 소극적 의미보다 정체성 탐색에 적극 관여하게 된다. 『토지』의 인물들은 수치 경험을 ‘내면화된 타자(internalized other)’로 삼아, 인간다움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셋째, 타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감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치가 있었다. 이때 개인은 수치심을 통해 공동체 속 존재로서 자신을 확립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경우, 두 번째 양상보다 감정 발현이 외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내부적으로도 자기 성찰에 좀더 깊이 관련하는 특징이 있었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 수

치심이 자기성찰로 이어지는 양상이 있었다. 이 자기성찰이 외부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능동적인 의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수치심은 자신의 수동성을 인식하고, 인간의 의미를 탐색하는 존재론적 감정으로 작동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수치'가 자기 정체성의 구성과 공동체적 감정 능력에 대한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었음을 알게 해주었다. 『토지』에서 드러나는 '수치'는, 인간성 상실의 징후를 고발하는 방식으로서도, 인간성 회복을 가능케 하는 기제로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를 통해 『토지』는 '규범적인 도덕적 내러티브'에 대한 명백한 정의 대신, 현실의 다양한 맥락에서 어떻게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가를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수치 감정은 관계적 인간으로서의 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훈련하고 함양하는 공동체적 감정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이 『토지』의 '수치'가 구성하는 윤리적 가능성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경리, 『토지』(1-20권), 마로니에북스, 2012.

### 2. 논문과 단행본

- 김수연, 『정의, 폭력, 공동체: 이해할 수 없는 정의와 윤리-J. M. 콧시의 『수치』, 『안과박』 30권, 영미문학연구회, 2011, 93-116쪽.
- 김영미·이명호, 『수치 감정의 프레임으로 본 콧시의 『치욕』, 『영미연구』 제3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6, 3-26쪽.
- 김은경,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굴절(屈折)”의 원리와 인물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35호, 민족문학사학회, 2007, 306-338쪽.
- 박경순, 『수치심과 나르시즘의 정신분석적 이해』, 『한국심리치료학회지』 3권 1호, 한국심리치료학회, 2011, 57-63쪽.
- 박상민,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악의 상징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_\_\_\_\_, 『박경리 『토지』에 나타난 윤리적·종교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인간연구』 제23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55-79쪽.
- \_\_\_\_\_, 『박경리 『토지』 연구의 통시적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제31호, 한국근대문학회, 2015, 271-319쪽.
- 서길완, 『프리모 레비의 자살과 현대적 의미』, 『비평과 이론』 제16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1, 55-76쪽.
- \_\_\_\_\_, 『버지니아 울프의 『새 드레스』와 자전적인 글에서 나타나는 수치심에 대한 주제 반복의 의미』, 『문학치료연구』 제38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201-232쪽.
- 서현주,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타자 인식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9호, 국제한인문학회, 2012, 57-86쪽.
- 오영숙, 『1960년대 한국영화와 수치심』, 『영화연구』 제69호, 한국영화학회, 2016, 67-98쪽.
- 이명호, 『아우슈비츠의 수치-프리모 레비의 증언집을 중심으로』, 『비평과 이론』 제16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1, 155-177쪽.
- \_\_\_\_\_, 『문화연구의 감정론적 전환을 위하여-느낌의 구조와 정동경제론 검토』, 『비평과 이론』 제20권 1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5, 113-139쪽.

- 이상진, 『운명의 패러독스, 박경리 소설의 비극적 인간상』, 『현대소설연구』 제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373-408쪽.
- \_\_\_\_\_, 『예외를 보는 시선과 더블-박경리 소설의 결손 인물』, 『여성문학연구』 3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351-382쪽.
- 이소영, 『프리모 레비의 증언 문학 연구-『이것이 인간인가』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중심으로』, 『이탈리아어문학』 40권,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13, 167-186쪽.
- \_\_\_\_\_, 『수치의 아이러니: 프리모 레비와 카프카』, 『이탈리아어문학』 51권,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17, 123-149쪽.
- 이승윤, 『『토지』의 서사 전개 양상과 소설 작법』, 『대중서사연구』 제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417-447쪽.
- 이양숙, 『메트로폴리스의 시공간과 청년의 감정-21세기 초 도시청년의 감정구조』, 『외국문학연구』 제6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6, 91-116쪽.
- 이재복, 『박경리의 『토지』에 나타난 송고미』, 『우리말 글』 제59집, 우리말글학회, 2013, 363-396쪽.
- 임지연, 『김종삼 시의 수치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6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283-310쪽.
- 전예진·방재석, 『『토지』의 여성이 겪는 트라우마와 공간 이동-서희와 봉순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409-432쪽.
- 정미라, 『“회복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수치의 공적 사용”의 정당성 문제』, 『대한철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대한철학회, 2017, 70-72쪽.
- 정은영·신희천, 『수치심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자기수용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5권 1호, 한국상담학회, 2014, 183-194쪽.
- 정준영, 『『일리아스』에서 영웅적 자아의 aidōs와 행위패턴』, 『서양고전학연구』 제33권, 한국서양고전학회, 2008, 5-44쪽.
- 진은영·김경희, 『유교적 수치심의 관점에서 본 윤동주의 시 세계』, 『한국시학연구』 제52호, 한국시학회, 2017, 299-326쪽.
- 허라금, 『수치, 그 공적 사용의 정당성과 한계』, 『대한철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대한철학회, 2017, 57-69쪽.
-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예하, 1993.
-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3.

-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장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정소성 옮김, 동서문화사, 2009.  
애덤 스미스, 『도덕감정론』, 박세일 역, 비봉출판사, 2009.  
조르주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옮김, 새물결, 2008.  
한나 아렌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06.

## Abstract

### Emotion of Shame and Its Ethical Possibility in the Novel *Toji*

Kim, Yeon-Sook(Kyunghee University)

Emotion is not simply what is given, but it is the experience in which the subject relates to the world. Previous discussions saw shame as being both positive and negative. The positive side is that shame allows a human being to pursue the better values through his or her self-examination. At the same time, since this examination and reflection are based on the negative awareness of self, they can be linked to a feeling of guilt, psychological suppression and the like. This awareness suggests that shame is closely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subject's self-identity.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characters in *Toji* who suffer shame and to discuss the ethical meaning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ir struggles and their response to such struggles. First, when the individuals exclude others and remain in their own world of self-identity, they lose a sense of shame. They remain in a state of self-centered narcissism, and cannot explore ethical judgment and values. Second, the characters tend to link the sense of shame to self-pride. At this time, shame is not that of being inhibitory and negative, but rather, becomes an element in the exploration of identity. Characters in *Toji* took the experience of shame as an internalized other person to stand firm in being a human. Third, characters showed shame from their sympathy with others. Individuals establish themselves as members of the community through a sense of shame. Fourth, characters developed a sense of shame from being conscious of others into self-examination. This self-examination did not lead to an active determination to change the external reality. However, a sense of shame served as an ontological emotion to recognize one's passivity, and to explore the meaning of humans.

This analysis revealed that shame was a factor that made it possible to construct a self-identity and to explore the communal emotional ability. Shame shown in *Toji* served as the way of reporting the signs of losing humanity, and as a mechanism of recovering humanity. This is the ethical possibility that shame in *Toji* can construct.



『토지』에 나타나는 '수치(Shame)' 감정과 윤리적 가능성 / 김연숙 161

(Keywords: *Toji*, shame, emotion, self-reflection, sympathy, ethics, community)

논문투고일 : 2018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15일